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 월호
2023

<Cover Story>

매화

“早梅春信(조매춘신)”, 매화는 추운 겨울을 뚫고 제일 먼저 피서 봄소식을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화는 동양화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사군자(매, 난, 국, 죽) 중의 하나이지요. 맑고 그윽한 향기에 취해서 매화를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매화의 봄날 잔치가 끝날 무렵, 매실로 영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는 고마운 꽃입니다. 저도 올해는 몇 년간 담지 못했던 매실청을 담가보아야겠습니다.

그림과 글 : 박향옥 집사



CONTENTS

표지 그림 : 매화 박향옥 : 1	수필 : 손실과 피해의 보상 이정길 : 13
한인회 :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 2	수필 :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정자 : 14
한국학교 : 학부모 및 ..안녕하십니까? 이수신 : 3	미술: 수학으로 보는..<최후의 만찬> 계영희 : 17
NEWS : 샌디아연구소 지역경제/ 순회영사	선교 : Hanukkah에 배척 당하신... 신경일 : 19
삼인 삼색 부흥회/한국어 세계 7위 인기 : 4	역사속의 인물 : 허--허--황희 정승 염희식 : 21
NEWS : 바이든.. 우크라이나/튀르키예지진 : 5	기행문 : 동 유럽, 발칸 14일 조혜란 : 22
NEWS: 미영공 침범한 중국풍선격추 : 6	영어이야기 25, 지갑과 Handbag 이상목 : 25
NEWS: NMSU농구/보잉747작별인사 : 7	2005년 미국 출생 한인 2세 국적 이탈 필요 : 26
NEWS : 57회 슈퍼볼 / 축하 여성 해군 비행사 : 8	간증/수필 : 하나님의 네트워킹 홍경애 : 27
NEWS : 로스앨러모스중학교 Science Bowl /	기행문 : 신비의 섬 울릉도 송은숙 : 28
리사신 공화당의장 당선/난방요금56%상승 : 9	기도 : 주께 간구하는 작은 기도 김순자 : 30
칼럼 :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김기천 : 10	고립된 노인치매발병 가능성 28% 높아 : 30
칼럼 : Wesley, Asbury, Appenzeller 나정용 : 11	NM 한인교회 안내 : 31

한인회 소식

교민 여러분께

윤태자

제20대 뉴멕시코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크로커스와 수선화 히아신스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 알버커키의 날씨에 앨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올해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라스베이거스 한인회 이취임식에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1월 15일에는 20대 한인회 임원 모임이 있었고 1월 22일에는 이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임하게 된 연유로 거의 모든 임원진 이사진이 그대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사임하였기에 다른 인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2월 3일 4일에는 엘파소 한인회 초청으로 연예부장 이희정 씨와 함께 엘파소에 다녀왔습니다. 엘파소 하이웨이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도로 공개행사가 있었기에 참전용사분들과 한인회에 축하드렸습니다.

뉴멕시코에서도 앞으로 영구히 기념할 수 있도록 6.25 참전 기념 도로가 생기길 바래 봅니다.

2월10일 한인회에서는 튀르키예 긴급 구제모금을 위하여 카톡으로 이메일로 편지로 교민들께 알렸습니다. 무명 200불, 신해숙 50불, 조은순 200불, 이해숙 100불, 이수신외 한국학교교사일동 300불, 김두남100불, 최신옥 100불, 위점덕 100불, 강은선 200불, 클로비스 이성희 목사님 200불, 한인회 100불을 모아 1차로 1,550불을 미주 총연

으로 보냈습니다. 2월28일 김태원 500불, 박순삼 500불, 장경림 200불, 클라라100불, 아가다 100불, 윤태자 200불을 합쳐 2차로 1,600불을 미주 총연으로 보냈습니다. 교회로, 선교단체로, 여러 군데 길을 찾아 튀르키예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교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회에 무명으로 500불을 후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박순삼 초대 회장님께서 한인회에 500불 후원해주



〈사진: 엘파소 한국전 참전용사〉
셨습니다. 또한 한국학교에 김영신 전 회장님께서 500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인회에서는 회관유지및 관리를 위하여 매달 지출 되는 비용이 있고 그것은 회비와 후원금 한국 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교민 여러분께서 한글 교육과 지역 사회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3월 21일에는 영사업무가 있습니다. 한인회 임원들은 당일에 영사업무가 필요한 교민들께 성심성의껏 봉사하겠습니다.

3월 17일에는 서남부 연합회 장학기

금 마련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서남부 연합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해당 학생들은 올해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마감은 3월 10일입니다. 문의는 각 지역 목사님께나 한인회에 하시길 바랍니다. 서남부 장학기금 후원자로 이정우, 조규자 전 뉴멕시코 한인회장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버이회 소식으로는 2주에 한 번씩 모여 한인회관에서 식사하시거나 함께

외식하십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한인회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며 후원하는 손길이 있기에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무슨 이득이 있어서? 가 아닌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세상에 물질로 수고로 나누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자 드림. ■



〈사진설명(왼쪽부터):이희정(연예부장), 윤태자(NM 한인회장), 조규자(전 NM 한인회장), 박성향(엘파소 한인회장)〉

한국학교 소식

뉴멕시코 학부모및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뉴멕시코 학부모 및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그 지긋지긋하던 팬데믹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듯하더니 안도의 숨을 채 멈추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등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한층 더 무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 한국에는 제주도의 유채 밭에서 불어오는 봄기운을 시작으로 온 산이 붉은 진달래로 물들어 가고 있을 텐데요 이곳은 지금 우리의 호흡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사막의 잡초 씨앗들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의 이사를 도와주는 공포스런 바람의 계절입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달님과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꽃송이들을 보면서 고국의 향수를 달래 봅니다.

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어교육은 어릴수록 학습능력이 탁월하고 시기를 놓치면 엄청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며 한글교육은 우리 어린이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학교는 한인 어린이들이 또래 집단과 어울려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전

통문화와 역사 등을 익히고 한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훌륭한 인성을 갖춘 Korean-America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인회장으로 봉사하셨던 김영신님께서 한국학교 프린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500.00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학교는 이번 봄학기에 5개의 아동반과 5개의 성인반이 개설되어 9명의 선생님들과 다수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학생들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태권도 수련 때의 동작 하나하나와 합성들은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학기에는 한국학교 수업 시간을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하는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한인 아동들이 한글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교육기관과의 학습 시간 중복



샌디아 국립연구소 지역경제에 기여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주간지로 발행하는 LabNews 2023년 1월 26일 자에서 Sandia의 지역 경제 기여는 22년도 회계 연도에서 처음으로 42억 달러를 넘어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2022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이전 회계연도보다 3억 1,200만 달러 증가한 수치이다. 지출에는 인건비, 하도급, 구매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되었다. 연구소는 또한 2022 회계연도에 480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 직원 고용 현황을 보면 2021 회계연도 동안 130명의 학생 인턴을 포함하여 610명의 직원을 채용했으며, 2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노동 및 비하도급 관련 지출에 사용되었다.

연구소의 현재 총 고용 인원은 알버커키에 있는 본 연구소의 12,600명을 기본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로렌스 리버모어 등 여러 지역에 분산해 있는 작은 연구소를 포함하여 15,500명이 된다.

기사 출처: Sandia LabNews,
<https://www.sandia.gov/labnews/january-26-2023>

한국어가 세계 7 위 학습 언어로 인기!

한국어가 인기 있는 언어가 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CNN은 글로벌 언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인 듀오링고 조사 결과 한국어가 작년에 이 앱에서 7번째로 많이 학습된 언어라고 전했다. 듀오링고 앱 이용자는 5억명가량으로 영어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순이었다. 한국어는 7위에 올랐으며 중국어와 러시아어, 인도어가 10위권에 들었다. 중국어는 국가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외국어 학습 순위에서 한국에 밀린다고 CNN은 분석했다.

삼인 삼색 부흥회 안내

알버커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오는 4월28일부터 3일간 춘계 심령부흥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세분의 목사님을 모시는 “삼인 삼색 부흥회”에 많은 참여를 권하고 있습니다.

강사: 김광년 목사(신내교회),
이한배 목사(부천광림교회),
이홍규 목사(큰믿음유신교회)

일시: 4월 28일(금) 저녁 7시(김광년 목사)
4월 29일(토) 아침 6시(이한배 목사),
저녁 7시(이홍규 목사)
4월 30일(일) 오전 11시(김광년 목사)

장소: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Ph. 505-341-0205



2023 년 상반기 순회영사 업무 안내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영사 순회 업무를 위해 오는 3월에 뉴멕시코 한인회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3 년 3 월 21 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멕시코 한인회관 @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순회영사 방문 전 준비서류 및 민원관련 문의:

순회영사 방문 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민원 종류별로 준비 서류 및 정확한 민원수수료(반드시 현금이나 Money Order로 준비)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상기 홈페이지 안내사항에도 불구하고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대표전화 (213) 385-9300, 내선 221-222 또는 당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 (consul-la@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NEWS

지난 두달(1/2월) 국내외 주요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일행이 탄 에어포스원은 미 동부 시각으로 19일 새벽 4시 15분 앤드루스 공군 기지를 이륙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는 기차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키이우 도착 일성으로 “전쟁 1주년을 눈앞에 앞둔 지금, 우크라이나도 민주주의도 모두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격려했다. 이어 오전 8시 30분,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마린스키궁에 도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

통령과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의 환대를 받았다.

바이든은 이날 우크라이나를 위한 5억달러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또 M1 에이브럼스 주력 전차 지원 결정에 이어 F-16 전투기 등 우크라이나가 요구해 온 다양한 최신 무기 제공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은 키이우에서 약 5시간 동안 머물면서 젤렌스키와 회담하고, 성 미카엘 대성당 인근의 전사자 추모의 벽 등을 찾은 후, 폴란드

로 떠났다. 바이든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세계를 결집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지진 대참사 한인사회도 돕기에 나서

튀르키예에 동남부지역에 2월 6일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뉴멕시코 한인사회도 이들을 돕기위해 나서고 있다. 한인교회는 교단을 통해 성금을 보내고 있고 한인회는 미주 총연을 통해서 두차례 성금을 보냈다고 한다. 아래글은 한인회장이 지역 한인에게 보낸 성금 모금을 위해 보낸 서한이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구제건이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여 알려 드립니다. 튀르키예 (구 터키)에 지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난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알고 계실것 입니다. 지금 56 개국에서 구조대원 6천4백명이 튀르키예에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재민은 75만 명이 넘을것 이라고 합니다. 사망자가 2만 3천명을 훌쩍 넘었고 인명피해는 10 만명이 넘을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급격한 기온저하로 매몰지의 저 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크게 늘어날것 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가장 많은 군사를 보내준 형제 국가입니다. 터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는 “유엔군의 기치를 들고 터키 보병여단은 한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침략자와 싸웠다. 여기 전사자 3,064 명의 고귀한 피의 값은 헛되지 않으리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성금을 모우고 있고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도 동참합니다. 우리 뉴멕시코 한인회에서도 동참합니다.

튀르키예에는 3,500 여명의 교민이 살고 계시고 2,500 여명이 이스탄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뉴 멕시코 한인사회에서 튀르키예 한인들의 구호에 적극 동참하여 천재지변으로 공포와 절



망으로 힘든 교민들의 도와 주시길 간청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무너졌고 아바나 지역 교민들은 앙카라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의 튀르키예 교민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제성금은 미주총연에서 모금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한인회로 보내 주시면 FKA 미주총연으로 보낼것이며 미주총연에서는 튀르키예 한국 대사관이나 튀르키예 한인회로 보낼것 입니다. Money order 나 check 의 Pay order to 는 FKA USA 로 해주시고 보내실 주소는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한인회장 윤태자 드림

미국, 영공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2023년 1월 28일, 미국 영공에 중국의 비행체가 진입했다.

미국 정부는 U-2 정찰기를 띄워 이 풍선을 추적한 결과 이 비행기에는 신호 정보 장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 기구가 라디오를 포함한 전자통신 장치와 안테나를 비롯한 다른 장비들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분명히 정보 감시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기상 관측 장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무부는 이 기구가 중국군이 주도하는 전 세계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5개 대륙 40여 개국에 걸쳐 중국 스파이 풍선을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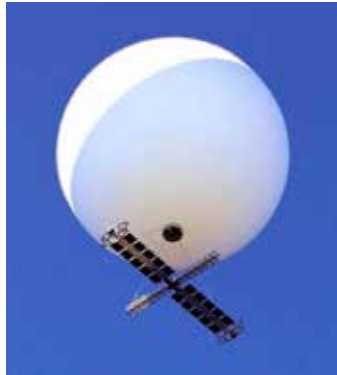
이번 사건은 미국 - 중국간의 긴장을 악화시켜서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 외교 방문을 할려던 차에 이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 영공 침범으로 인해 캐나다가 중국 대사를 소환함에 따라 캐나다와 중국과의 관계 역시 악화되었다. 2월 3일, 미국 방부는 두 번째 중국 풍선이 라틴 아메리카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도 이 풍선이 중국에서 간첩을 인정했다.

처음 풍선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은 전투기를 출격해 풍선을 격추할 것을 검토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잔해가 지상 안전에 위협될 수 있다며 격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월 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첩”이라고 중국 것을 인정했으나 “민간용이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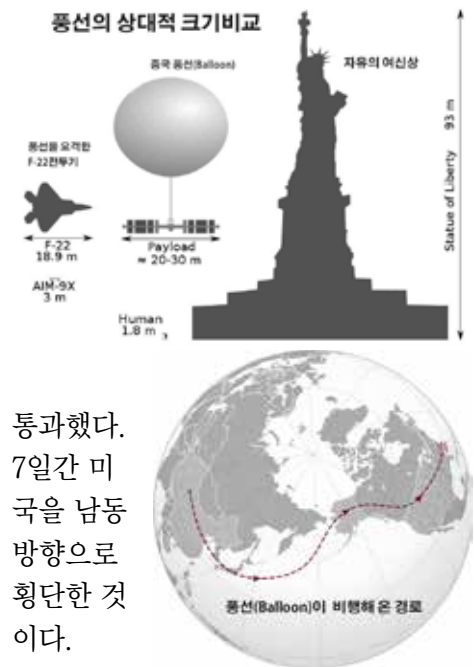
2월 4일,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오후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풍선을 격추했으며, 잔해를 수거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 39분(EST), 약 6만~6만5000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에서 출격 한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AIM-9X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 F-22 스텔스 전투기의 최대운용고도가 20 km 이다.



이번 풍선 제거 작전은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에서 출격 한 F-22 랩터 전투기가 주도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풍선에 근접한 F-22는 공대공 미사일을 쏘아 풍선을 정확히 맞췄다.

작전이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러 대의 공중급유기가 근처에 대기했으나 F-22는 단 한 발(a single shot)로 상황을 끝마쳤다. 현대식 정찰 풍선은 민간 항공기(12 km)나 전투기(20km)가 나르는 고도보다 더 높은 24~37km 고도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정찰할 수 있다.

2023년 2월 4일,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찰풍선은 1월 28일 알루산 열도 북쪽(알래스카) 지역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고,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準州)를 거쳐 1월 31일 아이다호주 북부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정찰풍선은 이어 몬태나주와 미조리주를 거쳐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통해 대서양 해면을



통과했다. 7일간 미국을 남동 방향으로 횡단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상관측을 위한 민수용 비행선’이라는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이 풍선은 중국의 감시자산으로 의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횡단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서 “풍선에는 고도의 통신장비가 있었고 프로펠러를 통해 방향을 여러 번 바꿨다”고 밝혔다. 풍선이 표류했다는 중국 측 설명과 달리 군사기지 상공을 찾아 비행했다는 뜻이다. 스파이 발론으로 본다는 말이다. 미국은 격추된 정찰풍선 잔해를 수거해 복원 작업에 나섰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영공을 침공한 사건에 대해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제히 중국을 규탄했다.

(2월 14일 작성)

뉴멕시코주립대학교 남자농구 프로그램, 교칙 위반 가능성으로 중단

뉴멕시코 주립 대학(NMSU)의 남자 농구 프로그램이 “학교 정책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중단된다고 학교 측이 발표했다. 학교 측은 “남자 농구 코칭스태프는 혐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급 행정휴



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립 대학교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대학이 취한 행정조치를 지지하며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의혹이 지난해 말 알버커키에서 발생했던 남자 농구팀 선수 중 한 명의 치명적인 충격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 관계자는 11월 19일, 포워드 마이크 피크가 학교와의 경기를 위해 알버커키에 가서 머물고 있는 동안 뉴멕시코 대학 캠퍼스에서 새벽 충격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Brandon Travis(19)와 다른 뉴멕시코대학(UNM) 학생 3명이 Peake를 폭행하기 위해 캠퍼스로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트레이비스가 충격전을 벌이던 피크(21)에게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트레이비스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고 현지 병

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충격 사건과 관련해 가중 폭행과 공모 혐의로 17세 소년이 체포돼 기소됐으며, 추가 체포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주 경찰이 계속 조사하고 있다. 그 주말의 앨버커키에서의 경기와 라스 크루스에서 12월 3일 재경기는

취소되었고 피크는 팀에서 자격정지를 당했다.

12월, 뉴멕시코 주립 대학교는 충격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과 대학의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참조: 23년 2월 11일, ABC NEWS〉

마지막 보잉 747 항로, 하늘에 새긴 작별인사

최근 반세기 만에 생산이 중단된 보잉사의 747, 마지막 생산된 항공기가 하늘에 왕관 모양 궤적을 그리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

항공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마지막 보잉 747(5Y747)은 2월1일 오전 미국 워싱턴주 페인필드 공항서 이륙해 신시내티 화물 항공사 아틀



라스항공의 공항에 착륙했다. 이 747 기체는 비행 중 왕관 모양의 궤적을 남겼는데, 자세히 보면 숫자 ‘747’에 왕관을 씌운 듯한 모습이다. 보잉사는 이날 트위터에 비행경로를 공개하고 “모델명과 함께 왕관을 볼 수 있다”며 “하늘의 여왕’에 대한 인사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종사가 왕관 모양으로 경로를 정해두고 그림 그리



듯 정확히 따라 비행했다고 한다.

보잉 747 항공기는 1970년 처음 취항한 뒤 50여년간 1574대 생산됐다. 본격적으로 장거리 비행의 길을 열고 현대 항공 산업 역사를 이끌어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도 보잉 747을 도입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연비가 뛰어난 보잉 777이 출시되면서 생산이 줄었고, 이날 마지막 생산분이 아틀라스항공으로 인도됐다.

다만 보잉 747이 당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생산분이 인도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보잉 747들은 항공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운행될 예정이다.

제57회 슈퍼볼 (Super Bowl LVII)

매년 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NFL의 챔피언 결정전 제57회 슈퍼볼은 애리조나 주 피닉스 근교에 있는 글렌데일 스테이트 팜 경기장에서 열렸다. AFC컨퍼런스에서 우승한 캔자스시티 치프스(Kansas City Chiefs)는 NFC 우승팀 필라델피아 이글스(Philadelphia Eagles)에 역전승을 거두고 제57회 슈퍼볼 NFL 챔피언 자리

에 올랐다. 치프스는 4년 사이에 2번째 슈퍼볼 승리를 거둔 결과가 되는데 이 팀의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25)는 이번 시즌 MVP와 동시에 슈퍼볼 MVP까지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슈퍼볼이 열리는 글렌데일의 스테이트 팜 경기장 6만3000여 석은 일찌감치 매진됐었다. 재 판매 가격은 최소 3100

달러였고 평균 가격은 8760달러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올해 슈퍼볼 TV 광고는 대부분 30초당 600만달러가 넘는 금액에 팔렸고, 일부 30초짜리 광고는 700만 달러를 넘겨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폭스(FOX)에서 맡은 금년 슈퍼볼 TV 중계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금년 슈퍼볼은 1억 1,310만 명의 시청자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TV 시청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



슈퍼볼을 축하한 미 해군 여성 비행사

ABC TV, 알버커키 출신 조종사와 인터뷰

뉴멕시코 알버커키 출신 여성 파일럿이 2월5일 슈퍼볼 경기장에서 “Star-Spangled Banner” 미국 국가를 부르고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경기장 상공을 비행하는 Flyover, 저공 의례 비행(低空儀禮飛行) 편대 비행기 중



ABC TV 기자와 인터뷰하는 페르코프스키 중위(왼쪽)

하나를 몰고 비행했다. 4대의 전투기가 다이아몬드 편대(Formation)로 비행했는데 다이아몬드 편대 후미의 전투기 F/A-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몰고 나른 파일럿이 알버커키 La Cueva 고등학교 출신 Caitlin Perkowski 중

위이다.

KOAT TV 뉴스에 의하면 피닉스 근교, 글렌데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에



서 슈퍼볼 Flyover를 준비했는데 정비팀에 소속된 부사관 Caitlin Hillygus 역시 알버커키 산디아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알버커키 출신 파일럿 Perkowski 중위는 슈퍼볼 Flyover에 참가하라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나 놀랐고 믿을 수가 없었다. NFL을 사랑하는 나에게 이 전화는 꿈과 같았다”라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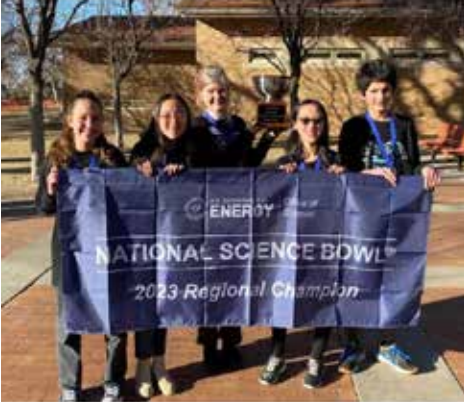
이번 Flyover에 참가한 7명의 미 해군 비행사 전원을 여성으로 구성한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슈퍼볼의 Flyover 요청을 받은 해군에서 세운 처음 계획은 남녀 비행사로 구성된 팀이었으나 해군 전투기 운용 역사에 여성 비행사 참여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전원 여성 비행사로 계획을 바꾸었다. 50년 전 1972년 미 해군 비행학교에 8명의 여성이 입학해서 교육받았고 1년 후에 6명이 졸업해서 최초의 여성 해군 파일럿이 탄생하여 이들을 “The First Six”라고 불렀었다.

이번 Flyover에 참여한 7명의 여성 비행사가 탑승한 4대의 전투기는 F/A-18F 슈퍼호넷 전투기 2대, F-35C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 1대, EA-18G 그라울러 전자공격기 1대이다.

로스앨러모스 중학교 Science Bowl 팀 전국대회에 진출

로스앨러모스 중학교의 Science Bowl 팀이 오는 4월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National Science Bowl (NSB)에 초청 받아 전국 대표들과 겨루게 된다는 보도가 지역신문인 Los Alamos Reporter (2월 9일)에 나왔다.

알버커키 아카데미에서 열린 뉴멕시코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승한 후 전국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Science Bowl 팀은 네명의 학생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한명인 Lydia(13)는 신경일 목사의 손녀딸이다. (아래 코치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왼쪽으로 부터 두번째)



1991년에 시작된 National Science Bowl® (NSB)은 과학과 수학 전 분야의 질문에 답하는 구두 포럼에서 경쟁하는 중고등학생 팀 간의 경쟁적인 과학 교육행사이다.

각 예선 지역대회 우승팀에게는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모든 비용은 지급된다. 이 행사는 대회와 함께 며칠 간의 과학 활동과 관광도 제공해 준다.

한국인 2세 리사 신, 로스앨러모스 공화당의장으로 선출



지난 1월 7일 (토요일) 로스앨러모스에서 2년마다 열리는 RPLA(Los Alamos Republican Party) 당 대회에서 한국인 2세인 리사 신(Lisa Shin)이 로스앨러모스 공화당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Los Alamos Reporter 지역신문이 보도했다. 리사 신은 1월 17일자 신문에 올린 공화당원에게 보내는 중앙위원회 회의 초청 서한에서 “저는 2023~2024년 임기의 RPLA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지역 공화당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비즈니스와 경영 운영 기술과 캠페인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정당을 위한 더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라고 포부를 발표했다. 로스앨러모스에 거주하는 안과의사로

서 Dr. Shin은 2016년 7월에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대선후보 지지 연설을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강조하여 뜨거운 환호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그해 8월에는 알버커키 어버이회 회원을 초대하여 점심 대접을 해주셨었다.

리사 신 박사는 UNM 에서 차프린 목사로 일 해오신 신경일 목사와 신수자 사모의 따님이 되신다.

(추가소식:3/4월호 편집기간중 리사신께서는 광야의 소리 발간을 위해 금일봉을 편집부로 보내 주셨다.)

뉴멕시코 1월 난방 요금 (Heating Bill), 56% 증가

뉴멕시코 주민은 New Mexico Gas Co.에 지불하는 난방 요금에 있어서 15년 만에 최고치인 천연가스 가격 덕분에 지난해 2022년 1월보다 56% 높은 난방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타격을 받았다고 알버커키 저널 (1월 20일 자)이 보도했다.

올해 1월의 평균 주거용 소비자 청구서는 작년 같은 달의 135달러에서 211달러로 올랐고, 전 세계적인 코비드 유행병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1월에는 80달러에 불과했다.

New Mexico Gas 회사는 일반적으로 가스 가격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낮은 뉴



멕시코 남동부의 San Juan Basin, 북서부와 Permian Basin의 뉴멕시코 생산회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다른 주보다는 이곳 뉴멕시코 주민은 조금 낮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출처: “Average NM January heating bills jump 56%”

Albuquerque Journal: January 20th, 2023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갑자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산 안토니오에서 열리는 중남부 지역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가끔 들어오는 이메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관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래도 선배 목사님께서 특별히(?) 전화를 주셨기에 왠지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참석하겠다고 했다.

알버커키에 온 이후 처음 10년 동안은 중남부 지역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다. 주로 텍사스 달라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였지만 거의 10시간동안 운전하고 달려갔었다. 달라스에서 치면 아마도 중남부지역 소속 교회들 가운데 우리교회가 가장 멀었다. 그러다가 거리도 멀고 해서 점점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관심도 멀어져 간지가 한 4-5년은 된 것 같다. 물론 지난 2-3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말이다. 참석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회비는 요청만 하면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소속 교회로서의 의무는 감당한 셈이다.

전화를 받고 잠시 중남부 목회자들을 생각해보았다. 대부분이 젊고 새로 부임한 목회자들일 것이다. 그래서 서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 60년은 목사님은 누가 참석하느냐고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들을 들어보니 나도 네 손가락 안에 드는 셈이다. 이미 나도 중남부 교역자들 가운데서 노년 측에 끼어버린 것이었다. 등록기간은 벌써 마감되었었다. 다음 주일에

열리는데 갑자기 등록도 안한 내가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진행하는 회장단에서 몇 시간도 안 되어 참석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우리 연회 안수위원회 모임이 있다. 안수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모임이다. 원래 이 모임에 이들을 참석해야 했지만 나는 중남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월요일만 참석하겠다고 안수위원회 회장에게 알렸다. 그리고 급하게 산 안토니오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세미나 주간 월요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여행 준비를 마친 후에 센트럴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는 안수위원회에 참석했다. 감독과 감리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회의에 앞서 올해 연회 상황에 대해 안수위원들과 대화를 가지려는 것이었다. 뉴멕시코는 땅은 넓지만 주민은 그리 많지 않은 주이다. 대부분 광활한 광야로 되어있고 몇 시간을 운전해야 작은 도시나 동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교회 역시 도시나 동네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니 다른 주에 비해 교회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연회가 뉴멕시코 연회이다. 그런데 감독의 말을 따르면 이번에 동성애 문제로 인한 교회 탈퇴 영향이 우리 연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개의 연합감리교회가 있던 어떤 도시에

는 모든 교회가 다 탈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 특별총회 후에 불거진 감독에 대한 불신이라는 말이 머리에 박혔다.

안수 위원회를 월요일모임을 마치자마자 교역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산 안토니오로 향했다. 세미나에서 그동안 못 봤던 목회자들을 만나기도하고 새로 보는 목회자들을 소개받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 강사인 박광배 목사님 역시 오랜만에 만나보았다. 달라스에서 매년 교인들을 이끌고 호피 인디언 선교를 떠나면서 중간에 우리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머물렀었다. 코로나가 아니면 매년 볼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은 뵈지 못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병으로 올해 은퇴를 하신단다. 오래 전에 알버커키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참석했던 분들은 당시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목회자가 가장 많이 모였던 때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총회 본부에서 일하는 장학순 목사의 강의는 줌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연합감리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산 안토니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저녁식사를 대접받을 때에 깡마른 한 장로님의 섬기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예배 중에는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옆에 앉았던 목사님께서 장로

<16 페이지로 계속>

칼럼

Wesley, Asbury, Appenzeller 그리고 우리 (성령불-4).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올더스 게이트(Aldersgate) 체험을 한 이후의 삶은 '전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Radical Change)였습니다. 그 이전의 삶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의(義, Righteousness)와 높은 뜻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과감하게 본질로 돌아가 사도 바울이 지적한 '다른 복음'에서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이 되시어 그분의 다스림이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은 18세기 당시의 타락한 사회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복음이 없다는 장엄한 외침의 소리가 그가 가는 곳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John Wesley는 자신의 성령체험, 회심 체험, 확신의 교리를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주저함 없이 힘차게 설교하였습니다. 그의 그 거룩한 전도활동은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를 빛나간 복음주의자로 인식하게 하였고, 끝내 성공회에서는 1738년 말에 John Wesley를 성공회의 어

떤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성공회의 큰 실수였습니다.

Oxford 대학에서도 1744년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설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교에서 이처럼 차갑고 싸늘한 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더욱 성경적, 복음적, 신학적으로 정리된 설교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Oxford에서조차 마귀의 신앙과 이교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이들을 훌륭한 신자라 칭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기독교 본질이 성령의 활동과 증거라 하면 '그것을 위선이요 열광주의라고 몰아붙인다.' 라고 담대하게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설교는 엄청난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으나 영국 안에서는 한 강단도 그에게 설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설교할 곳은 지붕이 없는 야외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서슴치 않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그를 몰아 광야로 몰아 부치셨습니다. 잠자고 있었던 진정한 믿음의 뇌관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동면하고 있었던 신앙적 야성을 되찾게 해 주시는 것 같았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전도자 같았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전도한 거리는 지구를 열 바퀴 도는 거리와 같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부흥운동의 거보를 내디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고로 야외설교를 시작한 날은

Aldersgate 회심 체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39년 6월 3일에 그는 London에서 가까운 항구도시, Bristol에 전도 본부(New Room)를 세웠습니다. 옛적부터 항구도시는 타락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로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래층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이층에는 자기와 함께 동역할 전도인들을 양육하는 교육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불량배들이 방해하면서 심지어는 New Room의 예배실까지 들어와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공허한 관념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참다운 생명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함께 사심으로 전도자들을 양육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칠판과 분필이 필요치 않았던 것은 Wesley도 그의 평상시의 꾸미지 않은 생명력 넘치는 천국의 삶이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Wesley의 삶 자체가 그들을 불같은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다가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 당한 것 같이, John Wesley의 제자들도 영국 전역은 물론 미국 식민지까지 파송되어 기쁜 마음

으로 불같은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중
에 Francis Asbury는 아무도 가지 않
으려 하는 미국 식민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자원하였습니다.

1740년 6월20일에 London Foundry
에서 Methodist 신도회를 시작 하였
고, 그로부터 2년 후에는 북부 산업지
대인 New Castle에 또 다른 전도 중심
지를 설정하여, 이미 세웠던 Bristol의
New Room과 함께 전도 삼각 지역본
부를 만드는 등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조직했던
것입니다. 실로 John Wesley는 복음을
위해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었
을 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조직자이기
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열정을 주
었고, 부활의 소망이 열정에 열정을 더
하였습니다. 그 열정은 혹독하게 그를
미친놈, 또는 열광주의자라고 비난하
는 경멸스러운 악행을 물리치며 구원
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전파했습
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그에게 열정을
더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
활의 산 소망을 주는 복음을 위해 어떠
한 고난도, 어떠한 비난도 기쁘게 감수
했던 것입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Francis Asbury는
스승에게서 그 불같은 열정을 배웠습
니다. 사실 그는 어린 나이에 손위의
누나를 잃게 됩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
(Eliza)는 여러 해 동안 실의에 빠져서
그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
였었지요. 그러던 중 순회 전도자의 설
교에 큰 감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순회
전도자가 되어 불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아들(Francis)에게 하나님 말씀
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다니

기 시작했으나 그의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주위의 학생과 교
사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으며 급기
야 학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
이었으나 John Wesley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이 그에게 옮겨붙자 그도
감리교 순회 전도자가 되어 자기의 스
승같이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하는 전
도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
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사는 진정한 기쁨
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버렸습니
다. 그 당시 미국은 무지와 질병, 굶주
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American Indian 들만이 산재
해 있는 암흑대륙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땅에 가서, 전도 하기로 각오한
그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말
았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결혼까지도 다 배설
물로 여겼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익숙한
모든 것들은 미련 없이 버렸던 것입니
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자기 소
유의 집 한 채 없이 이리저리 다녔으나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의 높으신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양
식이요, 생명이었습니다.

1771년 그가 26세 되었을 때 그는 자
원하여 영국 Bristol 항구에서 배를 타
고 미국 식민지로 향했습니다. 목사 안
수를 받지 아니한 평신도이었지만 복
음을 전하겠다는 일념만은 누구 못지
않게 불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했던
대로 말을 타고 미국 식민지의 구석구
석을 찾아 다니며 구원의 말씀을 불같
이 전하여 우체국이 없는 마을은 있어
도 감리교회가 없는 마을은 없게 되었
습니다.

1784년 12월 Christmas Conference
가 열리기 전까지 십수 년이 넘도록
평신도로써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를
그 되게 한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불이었기 때문이지 무슨 세상
적인 타이틀이나 감투 같은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
롭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
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였지만 여러 대학교를 포함한 훌륭한
교육기관까지 이곳저곳에 세워져 오를
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휩쓸고 나
아갈 찌칙한 일꾼들을 지금도 끊임없
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George Washington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어 미국의
기초를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박도록
큰 영향력의 발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Francis Asbury 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빛을 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그의 위대한 헌신을 미국
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불은 Henry Gerhard Appenzeller
에 옮겨붙어 1885년에 그가 한국 땅
에 오자 곧 그 거룩한 불은 한국 땅에
서 새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
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역사의 암흑기
속에서 모두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기
독교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
록 한국 땅에 불을 지폈습니다. 1919
년 3.1운동을 전후해서 신앙의 무서운
불길은 이미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회
와 유관순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전국
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
워하지 않은 일본 제국주의의 총과 칼
은 이러한 불의 역사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사실이 온 세계를 깜짝

<16 페이지로 계속>

수필

손실과 피해의 보상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 빙하권 기후 이니셔티브 ICCI의 ‘빙하권 상태 2022 보고서’는 온 세계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 해마다 여름이면 북극해를 떠다니는 해빙이 2050년까지 모두 녹아 사라질 것이며, 해수면의 상승과 함께 바람과 파도가 강해져 지표면의 침식 작용이 증가하면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매년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COP27이 2022년에는 이집트에서 열렸다. 사무 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개막식 연설에서 줄어들지 않는 배기 가스와 함께 지구의 온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혼란의 정점으로 빠르게 접근한다면, 마치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는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숨지고, 인구의 15%인 3,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졌다. 세계 식량 계획은 아프리카의 19개 나라 500만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 100만 헥타르가 침수되었다고 발표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서 수백 명이 홍수로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한다.

국제 구호 단체 OXFAM은 전 세계 억만 장자 125명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산업에 투자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들의 1인당 연간 3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소득 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90%가 배출하는 1인

당 평균 배출량 2.76톤의 100만 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 낸다.

지난 200여 년 동안의 화석 연료 사용이 기상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어서, 그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보상이 30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다. 그때마다 정의, 공평, 책임 등의 단어가 중심을 차지한다.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측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공해를 유발한 사람들이 마땅히 공해를 추방하는 데 드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55개 나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 중 20개 나라의 손실액이 5,250억 달러에 달해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 해당한다. 태평양에는 수많은 섬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전부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3% 이하여서 기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침수의 위협에 시달린다.

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게 만들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적인 방안으로 세계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 두 기관의 전반적인 개혁이 제안되기도 했다. 기상의 이변을 막는 큰 프로젝트를 채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하고, 거액을 개도국에 할당하여 그들 스스로 기후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도와 주는 방식이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대두되었다.

기상 이변은 점차 지구촌 전체에 퍼지고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너나

이정길

수필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없이 힘을 합쳐 당장 대처해야 하는 일이다. 개도국들은 국제 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정당성에 입각한 원조를 요청한다.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분란이 발생하여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존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화석 연료에 고도로 의존하는 생활 양식이 기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합당한 이유에서, 법률이나 습관 따위가 아니라 도덕에 바탕을 둔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후 대책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 회의의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논제가 되었다. 미국이나 유럽 연합의 나라들처럼 발전된 나라는 인구는 적은데 전 세계 연간 배출량의 79%에 달하는 온실 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기상 악화는 현재까지는 기후 변화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초래한다.

재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 도상국 134개 나라가 COP27에서 피해 구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마침내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이 197개 나라의 합의로 채택되어 유엔 차원의 국제 기금을 공식적으로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이 채택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기금의 형태, 기금 조성의 주체, 기금 지원 대상국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

<16 페이지로 계속>

수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불과 두어 달 전이었다. 선배 목사님 이신 심재정 목사님께서 소천 되시어서 장례예배에 갔다. 워낙 강직한 성품으로 그른 말을 들으시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바람에 때론 고독하고 수월찮게 교우들과 편치 않은 상황이 생기곤 했었다는 그 아드님 목사님의 회고였다.

그때마다 사모님의 요리 솜씨가 치료제였다고 한다. 별것 아닌 것으로도 호기를 돋우는 별미로 불편한 얼굴들을 마주 앉게 하시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치료하셨기에 무난히 정년 은퇴까지 남편 목사님의 진심이 증거되는 목회를 하실 수 있었다는 회고로 장내는 금세 킬킬~ 웃음과 평안이었다.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뵈게 되는 장례식이 목사님을 다시 살려내는 시간이었다.

산다는 것은 과연 기쁨이나 슬픔 외에도 고된 수고와 유머스런 에피소드가 함께 어우러지는 '추억을 만드는 수고' 라고 늘상 입버릇 처럼 떠들어대는 내 품새가 그리 알량것만은 아니었구나 싶어 나 스스로를 또한번 토닥였는데. 그러나,

그런건 그저 다 훗딱 지나가 버리는 세월에 아무 명분없는 자신을 측은하게 생각하다 생겨난 속편한 자구책 변명이지 싶기도 하다.

그렇지라도 그런 '추억을 만드는 수고' 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어느새 우리 내외는 이제 읽을 거리 하나 잡으면 아무 말없이도 하루 종일이 무난하다. 무난! 얼핏 무척 맛없고 싱거운 것 같지만 뭐 그런대로 눈 만 마주쳐도 대

충 형편을 알아채고 넘어가곤 하니, 그렇게 별 말없이도 하루를 무난~ 히 사는게 어떤뎐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우 물리적 지구 생활에 좀 익숙해 진다 싶었는데, 원걸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 지는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과연 거기에서도 우리 인성이란게 소통되는 것인지 아리송 하기만 한 메타버스의 등장이라던지,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능가한다는 AI 소식 등에서 더 어리둥절해 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땐 그 '추억을 만드는 수고' 라는게 도무지 뒤떨어져 무색하고 초라해 지기까지 한다.

실제로 더 초보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달라진 세상 소식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울에선 자동결제 수단인 인증 카드가 없으면 현찰로는 시내버스도 못 탄다는 소식이니, 손에 현금 몇 푼 쥐고 재래시장 찾아가던 것이 그냥 순박한 옛날엔~ 이 되고 말았다.

그 옛날엔~ 에는, 사지가 멀쩡한 백수가 남의 집에 걸식할 때에는 밥은 커녕 잡아다 맨살에 볼기가 20대였었다는 충정(?), 이 마을을 지켰다는 얘기에 그만 자세를 고쳐 앉게 하였건만, 변해도 한참 변한 시대에 혈떡이며 뒤뚱거리느라...점점 늘어만 가는 빈약한 변명들만 자구책으로 둔갑하여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오늘은 오지 아프리카 수단으로 의료선교 떠나시는 후배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남편이 주일 설교를 맡게 되어 함께 두어 시간 남짓 걸리는 남

부 뉴저지 교회로 가는 중이었다. 말없이도 우리 내외는 하루를 무난히 보낼 수 있는 실력(?)이요 행복 바뀌는 차창밖 겨울 아침 풍경도 그런대로 오래간만 느낌이라 마치 원더랜드라도 가는 기분이었지만 아침 8시부터 긴 거리 운전대를 잡은 남편에 대한 한 곳 배려로 나는 얘기를 시작했다.

전에 어떤 얘기꾼의 재미있는 분류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즉

40대 아내는 있어야 할 가재도구

50대는 가보

60대는 지방문화재

70대 아내는 국보

라는데.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머니와 아내로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또 갓 벗어난 해방의 언저리 혼란 속에서 태어나서 자식 낳아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랴 시부모 모시랴 너나없이 빠듯한 집안 살림하랴...게다가 뭐 자아실현이라? 모름지기 그런 건 벽에 걸어놓은 명화 같은 경우가 태반이 아니었던가! 그래도 여성들이 버텨기에 집안이란 게 요만큼 지탱되어 왔었던! 평생을 전쟁과 혼란, 경쟁 등을 끌어안고 '살아 내야 했던' 그 이름 '아내' 요 '어머니!'.

그 얘기꾼의 분류 반열에도 들지 못한 20대 아내. 유주호 권사님의 삶이 오늘의 주제였다. 내 남편과 앞서고 뒤서며 함께 훈련받았던 해병사관학교 34기 동기의 어머니이셨기에 긴 거

리 운전의 지루함을 쫓기에 충분한 소재였다.

권사님이 시집와서 살게 된 충청남도 유구 한 작은 동네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 중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 예수 애기가 자주 들려지자 변적! 고단한 외며느리 새 새댁 유주호의 새벽기도회 행진은 시작된다. 2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4살이 되자 그 어린 주먹을 쥐어 잡고 새벽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기도는 과연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는 관문이었으니. 충남 유구에서 공주까지 십 리가 넘는 캄캄한 새벽길이 전혀 신비롭기만 했다. 새벽이면 발바닥에 날개가 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댁은 아들을 뺏긴 채 내쫓김을 당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멸절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는 죄목이었으니... 그 무지하고 어눌했던 시대를 짚어 볼 만하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있어 감히 부인할 수 없건만 깊이 상고치도 않고 분별치도 못하던 무지의 세월! 그 무지라는 게 만들어 내는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연들이 호소할만하고, 의지할 만한 절대자를 찾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오래전에 물리학을 전공한 분이 소개하던 삼차원 세상 이야기가 재미있다. 얘기인즉,
"항상 물속에 살던 잉어가 사람의 낚시에 걸려 올려졌다. 공중에 올려진 순간 혈떡이며 두리번거리던 잉어의 눈에는 기상천외의 삼차원 세계를 보게 되었더라는 거였다. 자신이 살았던 물속에서는 상상도 엄두도 내 보지 못한 세상! 생명이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물 밖에서도?

뿐 아니라 지느러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런 세상도!?" 하더니 그만 제풀에 기절해 눈을 감아 버리더라나.

만져지는 것, 볼 수 있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등등으로만 살아오는 우리들은 그러나 낚싯대에 걸려 올려진 잉어의 경험을 과연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액운(bad luck)? 고난? 아니, 점도, 면도 아닌 삼차원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가진 것도 갈 곳도 없었던 권사님의 황당한 상황은 마치 갈대아 우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아브람의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들마저 뺏긴 채 이제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유주호! 얼마나 막막했을까 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어렵사리 기차에 올라 서울 역까지는 오게 되었다. 두리번거리던 차에, 마포에 가면 모자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예수 믿는 자들이 산다더라는 복음을 듣게 된다.

모자원! 주일이면 집안 식구가 마루 걸레질, 설거지조차 금할 만큼 엄격하신, 종교교회 유사 부장이셨던 김상연 조부 아래서, 또 캠벨 여사가 교장으로 있던 배화학당에서 예수 신앙교육을 받은 김노득 장로가 미 감리교회외 구제 사역 한국 사업 책임자였던 채핀 부인을 통해 3만 불을 지원받아 세운 주거지로 6.25 전쟁 군인 미망인, 남북 순교 목회자 미망인을 위한 것으로 방 하나에 부엌하나 달린 집 31동이었고 공동 화장실 한 동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물어물어 그곳까지 찾아 왔지만 그러나, 유 권사님은 그나마 그 카테고리에

들지 못했다. 전쟁미망인도 아니었고 남북 목회자 미망인도 아닌, 그저 쫓겨난 처지. 그러나 그의 심중엔 그런 카테고리 상관할 수 없는 권세요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끊이지 않는 천둥같이 우릉 우루릉~그를 움직일 뿐이었다. '세상 끝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허구헌날 들었던 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시키지도 않는 모자원 주변의 허드레 잡일들을 가릴 것 없이 해내니 과연 그곳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된 지라. 과연 모자원 입주 카테고리가 문제 되지 못했다. 덜컥! 방 하나가 주어지더라나.
이때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들을 억세게 찾아서 데려온다. 아들은 이 모자원 방에서 자라면서, 당시엔 유학 같았던 서울 국립 체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해병 장교로 월남전에 파병되고...미국에 이주하여 교회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이제 겨우 급히 지불해야 할 450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교회 건축헌금을 5만 불이나 할 수 있느냐?'고 숨 고르지 못하는 아내(지금은 장로님)에게
'이것은 내가 일 년 동안에 바치겠다고 약정한 것이요. 내가 1년에 이만큼 헌금하게 되면 누가 먼저 행복하겠소? 감사함으로 따르시오' 하더라나! 어둑어둑 팔십 년 전, 유구에서 공주까지의 울퉁불퉁 새벽길이 전설 같은 이슬에 젖어 축축해진다.

아들의 사업이 잘 나가던 차에, 오래 기다리던 백만 불 대출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 유주호 권사님. 거침없이 나온 말씀,
"아이고, 감사해라. 십일조 해야지!" 이셨는데,
"어머니, 이걸 내 것이 아니고 사업하려고 은행에서 빌려 온 돈이에요." 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15 페이지에서 계속>

더라나. 그날로부터 금식에 들어가셨던 유주호 권사님! 결혼생활 고작 3년에 91세를 향수하시고 후련히 본향으로 돌아가신 권사님!

권사님의 행진에 행보를 맞추다 보니 교회엔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맑은 아침 하늘은 나를 붙잡는다. 아마도 진정 믿음이란, 예수 때문에 고독할 줄 알 뿐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심지 곧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앗싸! 전에 없던 정월 훈풍이다. 성큼 봄이 당겨지려나? 겨우내 눈 한번 오지 않은 만삭되지 못한 봄이? 팡! 팡 팡?

"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롬10:11). ■

Wesley, Asbury, Appenzeller 그리고 우리 (성령불-4) <12 페이지에서 계속>

놀라게 했으며,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삶의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불을 갖고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미 훈련받은 우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차례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에 공헌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Vision이 우리의 Vision이 되어야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제 소견에 옳은데로 적당히 그리고 편하게 그럭저럭 의미없이 하루 하루 귀중한 시간만 보낼수는 없는것 입니다.

John Wesley를 성결케 한 불은 Francis Asbury를 뜨겁게 하였고, 동일한 불은 Henry Gerhard Appenzeller를 한국 땅으로 파송, 우리의 선배들을 통하여 세계역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불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을, 불을 우리에게 전했으나 지금은 시들어만 가고 있는 이 땅에 다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뜨거운 불을 전해 주었던 미국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 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모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멘!! ■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10 페이지에서 계속>

님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켜 오신 분이라고 또한 10여년을 중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다. 예배 도중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연합으로 함께 특송

을 불렀다. 산 안토니오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을 때에는 귀가 아파서 고생을 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면서 기압차이로 고막을 누르면서 머리까지 아팠다. 심지어 산 안토니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몇 시간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알버커키로 돌아올 때에는 분명히

달랐다. 비행기가 알버커키 공항에 착륙할 때에도 귀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내 귀가 기압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마치 긴 여행 버스나 기차를 타다가 내린 것처럼 귀속이 편안한 것이다. 아마도 나는 이미 알버커키 사람으로 적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라산 꼭대기와 비슷한 높이를 가진 도시 알버커키에 말이다. ■

손실과 피해의 보상 <13 페이지에서 계속>

용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칙에만 합의하면 그 다음의 관련되는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합의된 원칙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가끔가다

일치되지 않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 협의가 제때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

보상과 더불어 탄소를 포집하거나 배출을 줄여 기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금액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세태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의 유지에 기여한 국제 기구들의 존재 근

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권위주의 세력들로 하여금 미국의 우위와 서방의 영향력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하게 만들어서, 중국 · 러시아 · 북한 · 이란 등이 연대를 강화하여 소위 '불만의 축'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후 변화와 관련되는 이기주의가 태동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

수학으로 다시 보는 명화 <최후의 만찬>



계영희

영락교회 집사
고신대 명예교수

미술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예술이고, 수학은 매우 추상적인 자연과학입니다. 하지만 수학과 미술은 동시대의 시대 정신을 매우 밀접하게 반영해왔어요. 물론 여기서의 수학은 공간의 학문, 기하학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했던 유월절의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기하학의 발전과 미술의 화풍이 어떻게 그림에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비참한 존재로 보았던 중세유럽의 사고는 르네상스가 도래하며 의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기적과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절대시하며 르네상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어갔습니다.

르네상스인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탐구하는 실험정신이 촉진되었을때 회화에서는 원근법을, 의학에서는 해부학을 탄생시킵니다. 때를 맞춰 금속활자, 현미경,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체계도 시각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화가들은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기하¹를 연구하여 원근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세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묘사할 때, 인물의 비중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그렸지요. 예수를 가장 크게, 수제자 베드로를 두 번째로 크게, 그

다음엔 요한, 야고보 등의 순으로 ... 그러나 르네상스 화가들은 인체와 동물, 식물을 새롭게 관찰한 후 원근법을 도입하여 하나의 유클리드 공간 안에 예수와 제자들, 천사, 인간을 모두 같은 크기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말 13세기가 도래했을 때 수학과 과학에 뛰어났던 성직자 베이컨은 “하나님은 이 세계를 유클리드기하의 원리에 따라 창조했으므로 인간은 그 방식대로 세계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기적으로 중세인이지만 사고방식은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마침내 15~16세기가 되었을 때 화가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앞다투어 유클리드기하를 연구합니다. 지동설로 유명한 갈릴레오는 미술학교에서 원근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회화를 기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술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인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증거이지요. 원근법은 일명 ‘투시화법’이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멀리있는 물체는 작게 그리는 수법입니다. 어린 유아들은 이 원근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대로 그리는 것이지요.

원근법은 르네상스 이전에도 있었지만 수학적인 비례에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수학적인 비례에 완벽한 선(線) 원근법을 ‘투시화법’이라고 부르는데 키워드는 ‘소실점(vanishing point)’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계속 나아가다 멀리 지평선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있

는데 바로 이 위치를 소실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나’라는 주체가 사물이라는 객체를 파악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인 동시에 개인을 존중하는 ‘휴머니즘’ 사상입니다.

중세 말 대표적인 화가 두초(1255~1319)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합니다. (그림 1) 3년간 예수와 동거동락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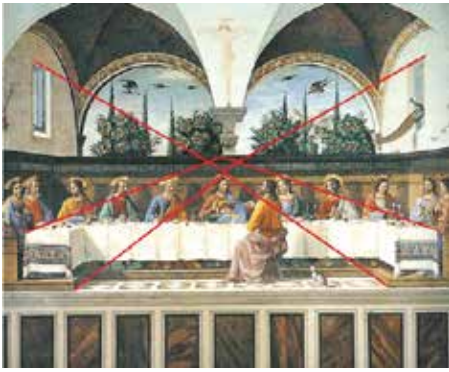


[그림1] 두초 <최후의 만찬> 1308~1311년, 두오모 오페라 미술관

12명의 제자들 모두 똑똑한 자세로 앉아있고 얼굴에는 개성이 없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의 중세화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원근법이 미숙하여 식탁 위에 있는 양고기와 쓴 나물, 빵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아요. 원근법을 시도한 초기 작품으로 천정과 벽의 평행한 선들은 소실점에서 만나는데 소실점이 5개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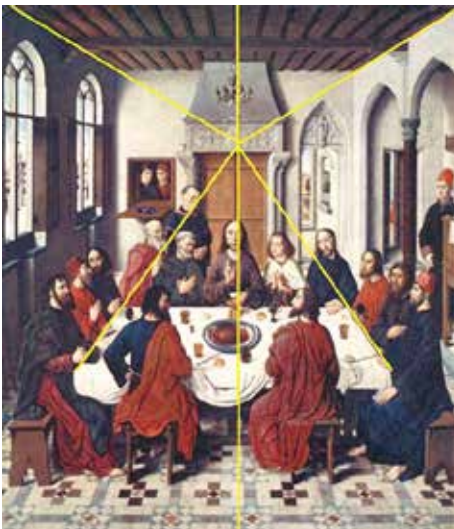
그림 2는 산마르코 교회의 수도원 식당 벽면에 그린 기를란다요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실내는 화려한 궁륭으로 오른쪽에는 공작새가 앉아있고, 천장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열린 공간으로 매

1 : 고대 그리스에서 발아한 것으로 현재 초·중·고 수학에서 기하는 모두 이것을 지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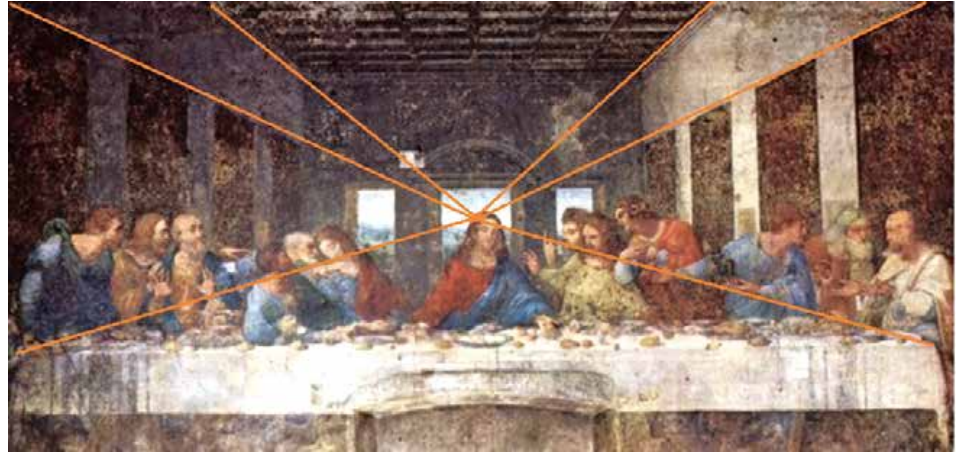


[그림 2] 도미니코 기를란다요 <최후의 만찬> 1480년,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

우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공간이지요.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예수님의 옷자락 주름은 마치 여인네의 긴치마처럼 매우 자연스럽지요. 평행한 테이블의 양쪽선은 정면 기둥에서 만나고, 바닥의 양 끝선의 소실점과 벽의 창문의 두 선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소실점은 2개로 줄었어요.(그림 2)



[그림 3] 디르크 바우츠 <최후의 만찬> 1464~1467년, 르우벤 산피에르 성당
그림 3은 15세기 디르크 바우츠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앞의 작품에서 소실점의 갯수가 5개, 2개였는데 드디어 1개로 줄었습니다. 소실점의 위치는 화폭 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장 모서리의 선과 식탁의 양 끝선이 벽난로 위, 한점 소실점에 모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예수와 12제자 외에 집주인 마가처럼 보이는 남성



[그림 4]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1494~1498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 수도원

이 예수 뒤에 서 있고, 빨간 모자를 쓴 시종이 오른쪽과 뒤의 창문 밖에 서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13명의 손님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려면 꽤 유력한 집안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요. 바닥의 타일은 21세기 지금 우리 눈에도 세련되고 멋져 보입니다. 이처럼 서양의 화가들은 수학적 비례에 맞는 원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한 점 투시화법’에 도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구의 정신인 것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하실까요?

이 작품이(그림 4) 앞의 그림보다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3명씩 4그룹으로 나뉘었고, 멀리 예수의 머리 뒤에 소실점을 셋팅하여 다른 작품에 비해 3차원적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는 예수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떨쳐버리기 힘들었겠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3년을 동거동락 했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할 것이라는 폭풍 같은 선언을 합니다. 스승의 말에 깜짝 놀라 요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포착한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교회 수도원 식당 전체 벽면에 그

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림 속 천장 모서리 선과 실제 식당 벽면의 천장 모서리선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다 빈치의 공간 계산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지요. 하여서 수도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수도사들은 예수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착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예수가 실제로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한 메뉴는 양고기와 쓴 나물, 빵, 포도주였으나, 16세기의 다빈치는 양고기 대신 당시 유행하던 장어 요리를 그렸어요. 같은 주제 일지라도 화가가 지향하는 철학과 욕망, 가치관이 반영되곤 합니다.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최후의 만찬>은 서양에서 중세가 물러갔건만 여전히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므로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은 당연히 의미있는 주제였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뒤러의 판화로 <최후의 만찬>을 감상해보실까요? 뒤러는 12제자 중 배신자 유다가 나간 후 11명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35절의 말씀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소동하거나 분노로 법석 떨지 않고 예수는 잠든 제자 요한을 품에 안고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이

<20 페이지로 계속>

선교

Hanukkah (수전절)에 배척당하신 예수님

신경일

(전)UNM병원Chaplain 목사
Los Alamos Medical
Center 근무



요한복음 10장 22, 23 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쓰인 글에서 수전절, Hanukka를 만나게 됩니다.

Hanukka란 무엇입니까? BC 164년에 유다의 독립운동가 Maceabees Brothers 가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봉헌한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의 축제이고 봉헌의 축제 (Feast of Dedication) 라고도 합니다. 그보다 3년전에는 안티오코스 황제가 Hellenism 을 유대인에게 전수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배반 하였지만 그들의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대승리의 축제인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절기 (Feast) 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특별한 종교적 휴일 (Special religious holiday)을 묘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Hanukkah는 12월25일부터 8일동안 계속하며 Itamukkiah의 꺼져 있던 9개의 등불을 켜는 축제입니다. 수전절 외에 다른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유월절 (The Passover)은 애굽 (Egypt) 에서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월 14일에 지킵니다 (레위기 23:5)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The Feast of Harvest)은 이삭을 수확한뒤 첫곡식단을 드리는 절기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출 23:16) 수

장절 (The Feast of Ingathering)은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하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로 일명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34) 이상 세가지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림절은 에스터 (Esther)가 왕후가 되어 하만으로 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멸절시키려는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구출을 기념하는 절기 입니다.(Esther 9:17,22,26)

구약의 3대 절기 외에 부림절, 초실절, 나팔절이 있는데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수천년의 역사속 에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살아서 오늘까지 생존 하였는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2300번 언급되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창 32장 28절, 왕상 18장 31절)인데 영적인 이름으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Messiah)를 뜻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하였으며, 복유의 마지막 주자로 부상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13개의 이스라엘교회 개척 하였으며 Silk Road Aliyah (유대인 본토 귀환) operation이 착착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설문 조사 (gallop Poll)가 나

왔는데 지금은 과연 종말시대 (End Times) 인가에서 미국의 성인 41%, 복음주의자 77%, 개신교인 54% 가 나왔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2월 4일 주말에 튀르키예 (구 Turkey) 시리아에 금세기 최악의 지진 (Earthquake)이 일어났습니다. 2만8천의 사상자와 수십만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터키는 6.25 전쟁 때 미국, 영국 다음으로 1만 5천명 군인을 파송해서 3000 명의 희생자를 낸 우방 국가 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 온역으로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신것 처럼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자연계의 이변으로 (사무엘하 24장 13절) 이같은 징조는 성도로 하여금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라는 sign(신호) 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튀르키예 3,500명 교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하나 무너졌다고 합니다. 터기 국민과 한국교민들을 위해 전적으로 구호 작전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절망과 도탄에 허덕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30절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전절에 배척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는 예수께서 친히 여러번 사용하신 자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무지는 도저히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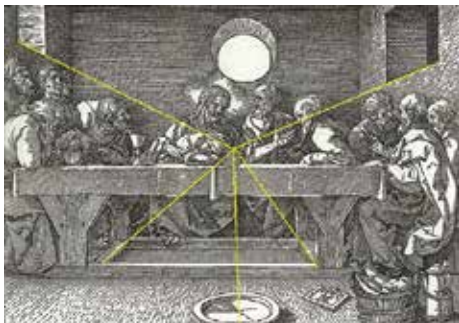
힐 것을 요구했습니다.(24절) 예수께서는 이제껏 하지 않았던 간단하고 명료한 어조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이심(30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에서 일체성 뿐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서도 (메시아 사역)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규정하고 돌을 들어 예수를 치러 (hit) 하였습니다.(레위기 24장:14~16절) 이것은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할수 있는 한계 행위라고도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 살해 음모를 더욱 본격화 하게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마 27:21~25절)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 무지함으로 (누가 19장 41~44절) 멸망과 재난으로 (누가 21장 24절) 임합니다. AD70년에 로마의 티투스(Titus)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었으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재탄생하여 오늘에 이르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

으니 얼마나 커다란 축복과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우리말로 번역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하고 있다는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imminent) 함을 알수 있습니다. 저의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Watchman)이 되게 하소서. Maranatha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할렐루야. ■

영화 <최후의 만찬> <18페이지에서 계속>

한 사실은 식탁 위에 성배만 있고 빵이 없어요. 바닥의 둥근 접시는 비어있고, 옆 바구니에 빵이 들어있어요. 15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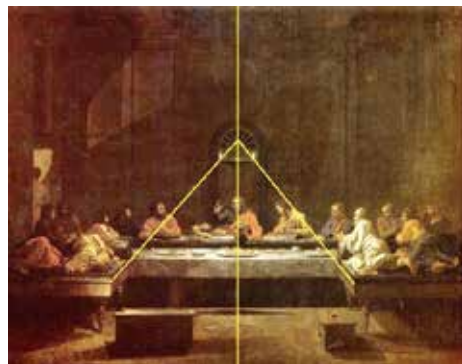


[그림 5] 뒤러 <최후의 만찬>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1523년, 루터는 평신도도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평신도는 빵만 허락되었고, 포도주는 성직자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비텐베르크와 가까운 뉘른베르크에서 뒤러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지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판화에서도 벽의 창문 아래 선과 테이블 바닥의 양쪽 선이 빈 쟁반의 중심선과 완전히 1개의 소실점에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판화가 유행한 것은 값비싼 성화 대신에 간편하고 아름다

워서 대중적이었고, 부적같이 효험이 있는 것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궁정화가 푸생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앞의 그림들과 다른 색다른 화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 6) 17세기는 ‘과학의 세기’라고 불리는 시기로 뉴턴과 라이프니치의 미적분학이 창안되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지식인이 추구했던 가치관은 힘, 에너지, 빛, 속도 등이었지요. 이러한 시대정신을 동시대 화가들도 예외 없이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고, 미적분학의 ‘순간변화율’의 개념처럼, 화가들도 바로크 미술에서는 순간의 동작을 포착하는 바로크미술의 화풍을 만들어 갑니다. 푸생의 그림은 가룟 유다가 문을 열고 막나가는 순간을 포착했으며, 제자들은 모두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작이 자연스러운 곳은 찜질방이지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눕거나



[그림 6] 푸생 <최후의 만찬>

엎드려서 식사를 했다는군요.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는 바로크 화풍이지만 양식은 고전주의입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소실점은 1점인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지나는 중심선에 디자인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유럽의 미술에서 400년간을 수학의 공리(axiom)처럼 지켜왔습니다. 20세기 입체파의 피카소가 화풍을 바꾸어버릴 때까지...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유클리드기하를 연구한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 수학에서 새로운 기하학, 사영기하학(Projective Geometry)이 발아한 것입니다. 미술과 수학이 동시대의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 다른 문화로 표현된 것 입니다. ■

<최후의 만찬 (2)>

연속 되는 글을 '만남'지 2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code를 스캔하면 됩니다.

www.youngnakmn.net
틴토렛토 <최후의 만찬>



역사속의 인물

허-- 허-- 황희 정승



염희식

장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황희(黃喜)정승은 고려말 젊은 나이에 출사하여 이성계 역성혁명(易姓革命)을 거치고 고려에 선비들과 같이 황해도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혁명을 적극적인 대항이라기보다는 고려 왕조를 배신할수 없다는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황희는 두문동에 어르신들의 적극적 충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을 섬기려고, 새로운 이씨조선을 위해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줄에 서있었던 그는 오랜기간 하직관리에서 성심을다해 나랏일을 담당했습니다. 비로서 태종 때에 이르러 박석명의 추천에 힘입어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조 초기 조정에는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있었고, 특히 태종의 처남들 민씨형제들에게 위협이 있던 상황이었습니 다. 이 때에 태종을 보필하여 위협에 불씨를 없애는데 일조하게됩니다. 이후로 태종은 황희를 신임하기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태종은 그를 항상 곁에 있기를 명할만큼 신임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였 다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 다. 그이유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자 양영군을 폐 세자하고 셋째 충녕군을 왕세자를 책봉하려 할 때 성리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여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후 4년이 지나고 세종대왕의 시대가 열렸으나 아직도 세종은 정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적자가 아니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상왕으로 물러났

은 태종에 권유로 그는 다시 조정에 복직하게 됩니다. 세종을 보필하던 황희 이분은 재상이라기 보다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선비라는 인품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Episode를 몇개 옮겨 보겠습니다.

젊은시절 두 황소를 부리며 밭일을 하던 농부에게, 어떤 소가 일을 잘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늙은 농부는 젊은이 황희를 돌려세우고 귓속말로 “누렁이가 더 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농부의 의아한 행동에 놀라 황희가 되물어보자 늙은 농부는 말하기를 “아무리 짐승이라도 못한다는 눈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두 짐승은 내 말을 잘 듣고, 저들의 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 다. 그후로 황희는 남의 단점을 입 밖에 내놓지 않았다 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루는 두 계집종이 다투다가 황희 앞에 와서 고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한 종에게 그렇군 “네 말이 옳구나”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도 “네 말도 옳구나” 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있던 조카가 “하나가 옳으면 하나가 그른 법인데 어찌 둘 다 옳다고 하십니까?”라고 하자, 황희는 조카에게 “그래 네 말도 옳구나.”라고 했습니 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자기 자식들과 종들의 자식들이 같이 놀게하고 밥상도 같이 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어떤 외지에서 온 선비가

“신분이 다른데 어찌 된 일인가?” 하니 “사람은 모두 하늘로 부터 내려진 귀한 생명이라”고 대답하였다는 흐뭇한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백성이 귀천에 구별 없이 하늘로 부터 내려진 귀함을 알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성품을 가진 정승이었습니다. 이러한 황희정승은 당대에 내로라하는 집현전 학사들에 의견을 다 들어 주고 존중하고 못마땅한 부분도 다 품어 주는 어질고 너그러운과 섬세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세종임금이 큰 업적을 이루는데 중추적 소명을 다하는 분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은 선왕 태종 임금같이 황희정승을 귀하게 의지하기를 집착할 만큼이나 옆에 두고 정사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은 구십 평생 60년을 나랏일을 그중 18년에 영의정직을 감당하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 했습니다,

황희 정승일생을 보며 배울점은 모든사람이 하늘로 부터 내려진 귀한생명이니 귀천에 구분 없음을 바탕으로 나라일에 근본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사람은 하나님에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표준구(Locus classicus)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늘에 가치로 대하여야 할 줄 믿습니 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엇이 큰 문제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황희정승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

기행문

동 유럽, 발칸 14일

조혜란

권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지난해 6월 휴스턴을 방문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신앙 생활하며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같은 이집사님 부부를 만나 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늘 살뜰하게, 정감있게 맞아주시는 따뜻한 분들이시다. 점심식사를 하며 그동안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시고 은퇴하시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되신 일과 지내오신 삶의 순간마다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셨다. 가을에 동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데 함께 가자고 권하시며 여행사를 소개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셨다. 신앙에도 사업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의 권유와 여행지로 늘 관심이 있던 지역이라 오랜 망설임 없이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주저앉히려 했지만...

미국 내 몇 개의 도시에서 모인 23명이 그룹이 되어 독일 뮌헨에서 첫 만남을 가지며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보다 연세들이 있어 보였지만 여행의 설렘은 모두 한결같아 보였다.

점심 식사 후 여행사 사장님과 체코에서 오신 젊은 여성 여행 가이드와 대형 관광버스 기사님 그리고 우리 23명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소망하며 힘찬 출발을 하였다.

각 나라와 도시의 특성, 역사, 문화, 예술 작품, 자연경관의 아름다움, 관광명소, 음식 등을 몇 줄의 글로 표현

하기에 나의 짧은 문장 실력이, 지면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움을 전제하며 그저 창밖에 지나간 순간적 풍경들을 기억의 창고에 메모하려고 한다. 영어, 독일어, 각 나라의 언어도 모두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려고 한다.

네오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인 뮌헨시 청사, 광장의 수많은 관광객의 생동감 있는 발걸음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쯤은 사라진 듯 보였다. 알프스 북부 이자르강 강가에 위치한 이 도시는 15년 전 방문했을때의 청결한 인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첫날 오후, 뮌헨 시내 관광 후 우리는 뮌헨으로 이동하였다. 역사 깊은 아름다운



노이슈반슈타인성- 백조의 성

호텔에서 시차 적응과 내일을 위해 숙면을 청하였다.

호텔 조식 후, 비 내리는 날이지만, 마리엔 다리 위에서 루트비히 2세가 사랑하고 디즈니랜드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모델이 되기도 한 노이슈반슈타인성- 백조의 성을 관람하였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인원의 동원과 국고 소비로 그 당시 논란이 되었었지만, 성 내외의 너무나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물이 감탄을 자아내며 지역 최고의 관광지가 되어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며 국고를 다시 채우고 있는 듯했다.

언제 보아도 감동을 주는 영화 사운드트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동하여 바로크 양식의 미라벨 정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판들이 늘어선 게트라이데거리,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생가, 모차르트가 세례받은

대성당을 돌아보았다. 이 지역에서 일행 중 한 분 이셨던 전직 내과 의사 큰언니를 잃었다가 40분 만에 찾는 해프닝도 있었다. 우리 일행은 늘 귀에 리시버를 꽂고 가이더의 해박한 설명을 들으며 다녀야 했지만, 순간 어떤 유혹에 끌려 일

행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종종 생겨났다.

저녁을 먹으러 강가에 위치한 예쁜 식당으로 갔다. 매일 아침 호텔의 조식과 때때로 먹는 호텔의 저녁 식사는 매우 다양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관광 중 이동할 때의 메뉴는 대개 도착 전 준비해 놓은 단체식이다. 현지 맛집이라 해도 샐러드, 수프, 메인디쉬, 디저

트 순이다. 돈가스 스타일의 돼지고기와 감자, 양배추 샐러드가 주를 이루었고, 이 메뉴가 싫은 사람은 다른 음식을 주문해도 좋았지만, 싫으면 안 먹든지 적게 먹고, 까다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분들은 고추장, 김, 누룽지 등을 가져와 느끼함을 달래기도 했다. 여행 내내 돌아가며 드링크도 사고 화기애애하게 지냈다. 이분들 다 예수쟁이들인가?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보헤미안의 흔적이 서린 중세 도시, 체코의 체스키크롬포프로 이동하였다. 체스키크롬포프성, 그 성을 연결하기 위해 만든 망토 다리, 중세 시대 건물로 둘러싸인 스보르노스티 광장,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즐비한 이 도시의 변화가 라크란거리- 이곳에는 보석 중 자줏빛 석류석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보석을 구입해 그 인기가 크게 더해졌다고 한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이어주는 이발사의 다리 등을 둘러보았다. 동상마다 담고 있는 사연들을 마주하며 고개가

숙어졌다. 그동안 많이 걷지 못했던 내겐 고된 훈련의 시간이었다.

한국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으로 친숙하게 다가온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하였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오렌지색의 화사한 지붕들이 푸른빛 강물과 조화를 이루며 절묘한 풍경을 이루어내고 있었다. 체코, 크로아티아의 오렌지색 지붕을 발랄한 소녀에 비한다면 헝가리의 회색빛 지붕은 중후한 신사와 비유한다고 한다. 다양한 양식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구시가지 광장, 천동설에 입각한 우주관을 보여주는 천문시계는 그 명성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음 날 우리 일행은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이동하였다. 영화 윈들러즈 리



도나우강과 부다페스트 의회건물

를 함께 나누었다.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은 1978년 세계 최초 12개의 자연유산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그 의미가 크고 지상에서 지하로의 깊이가 340m, 그 옛날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소금으로 700년 동안 채굴하던 곳이며 소금으로 만든 다양한 조각상과 최후의 만찬 벽화, 킹카 성당, 멋진 샴들리에 등 오직 수작업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진 소금 작품들이 기막힌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다.

아침 식사 후 동유럽의 알프스 - 자코파네 파트라 국립공원으로 갔다. 화강



암으로 이루어진 산마루, 빙하로 침식된 지형, 가을빛 가득한 호수를 아쉬운 듯 뒤로하고 낮과 밤이 모두 설렌다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였다. 헝가리 정착 천년을 기념해 세워진 기념비가 세워진 영웅광장, 역대 헝가리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마차시사원,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이스트반 대왕을 기리기 위한 성



체코의 체스키크롬포프



스트의 배경이 된 과거 유대인 강제 수용소로 알려진 아픈 역사가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뼈아픈 인류사를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는 폴란드를 꼭 방문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의 유품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로 된 방마다 옷, 가방, 머리카락, 안경, 그릇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사진으로, 기록으로, 생생하게 체계적으로 잘 전시되어 있어 오히려 그 아픔이 오래도록 가지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폴란드의 작은 식당에서 남편의 깜짝 생일 축하를 해주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감사한 삶을 기도하며 케이크

이스트반 사원, 18세기 어부들이 성벽에서 적군을 방어했다는 전설이 있는 어부의 요새,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멋진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면서 여행이 주는 감동과 환희가 절정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했다.

다음날, 크로아티아의 심장이자 수도인 자그레브로 이동하여 네오고딕 양식으로 이색적인 자그레브 대성당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성당의 벽화, 조각, 구조, 금속 집기,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찬란한 색이 화려함의 극치를 이뤘지만, 가는 곳마다 성당이 관광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었다.

크로아티아 어디를 가나 빨강, 파랑, 하양의 그 나라 국기의 색깔을 볼 수 있었다. 지붕에도 넥타이에 도... 넥타이가 처음 만들어진 나라가 크로아티아란다. 이 나라에는 특별히 키 큰 사람들이 많아 세계 각국의 모델 에이전시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 멋지고 키 큰 모델들을 찾기위해...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대성당

16개의 호수와 10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세계문화 유산이며 크로아티아 국립공원인 플리트비체는 아직도 그 맑은 물소리와 평화롭게 노니는 송어들이 들릴 듯, 손에 잡힐 듯, 눈앞에 아련하게 펼쳐진다. 자연에 그 어떤 인공적인 것을 접합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자연보존의 법칙과도 같은 자부심이 부럽다. 역사 깊은 오래된 호텔들이 오래도록 옛 모습을

보존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외부인의 투자를 받기지 않고 사업을 허락하지도 않으며 자손들이 가업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여행지에서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중 일회용은 찾기 힘들었다. 샴푸나 로션 등도 벽에 고정되어있는 병에서 짜서 쓰고 종이컵 같은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조명도 어두운듯 에너지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듯 했다.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달마시아 남부의 아드리아 해에 면해있는 역사적인 도시로 보스니아의 내음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인기 있는 항구도시이다.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 할 만큼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 한다. 이탈리아의 건축학자 버팔리니가 설계한 두브로브니크 성당, 고딕 장식이 인상적인 스폰자궁, 단아하고 아름다운 렉터궁전, 하얀 대리석이 깔려 있는 라차거리 등을 사진찍기에 바빴지만, 실제의 아름다

움과 감동까지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궁전 입구에서 울려 퍼지는 남성 사중창단의 하모니는 여행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감을 선물해 주었다. 고대 로마 황제가 여생을 보내고자 선택한 스플리트로 갔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성 미스우스 대성당, 크로아티아의 종교 지도자 그레고리우스 닐의 거대한 동상, 그의 지발가락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너도 나도 만져 다 반질반질 닳아 있었

다. 신하와 하인들이 거주하던 200여 개의 집터가 남아 상점과 카페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미로같이 뻗어있는 골목 골목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알프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마을 블레드로 향했다. 알프스와 성 그리고 호수와 그 안에 작은 섬과 작은 교회가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울리안 알프스의 보석이라 불리는 곳이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라냐에서 다음날 마지막 행선지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된 비엔나! 다뉴브강 유역에 위치해 많은 매력과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위대한 역사, 유적지, 전설적인 미술품, 반짝이는 궁전, 세계적인 콘서트와 오페라 하우스, 탁월한 음악 유산, 유명한 말과 승마학교 말이 끄는 택시, 케이크와 커피하우스까지 많은 방문자를 끌어모으는 매력과 감각을 가진 국제적인 도시이다. 장엄한 부른전은 웅장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정원까지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풍성한 볼거리로 안내해 주었다.

이제 14일의 여정을 마치며 비엔나에서 각자의 집으로,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무 사고 없이 또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용기를 내어준 분들께,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여행이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 주는 것이며, 세계는 한권의 책이며, 여행자들은 여행할 때마다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과 같다 한다. 여행은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창조주 그 분 앞에서.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리면 떠나자 한 그녀의 말이 떠오른다. ■

영어이야기 25 지갑과 Handbag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K7MOK)

Internet이나 잡지를 보면 10 Best Places To Live(살기좋은 10곳)나 10 Best Food To Eat(몸에좋은 음식 10가지)처럼, 선정된 최고를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한것을 많이 봅니다. 좋은것뿐만 아니라 피해야할 음식 10가지(10 Worst Food To Avoid)등 여러분야에 걸쳐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것이 다르며,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보는것이 좋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는 New Mexico는 잘알고 있듯이 교육이나 주민들 생활정도가 50개州중 거의 밑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곤율(poverty rate)도 20%에 달하고 범죄율도 Alaska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2배). 살기좋은 조그마한 도시명단에 들어가는 도시에 Los Alamos가 등수안에 들었던 것을 보았는데, 핵연구소 덕분에 주민들 중간수입도 \$100,000이 넘고 고학력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도시와 떨어진 산간지방에 사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Albuquerque지역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등수안에 드는 중서부나 북동부의 추운 겨울보다는 따스한 이곳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필자들의 생각이 아닐것입니다. 서부영화를 좋아하고, 파아란 하늘이 붉은갈색의 땅과 집들과 조화를 이루는 남서부 지방을 (American Southwest)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최악의 10가지를 다룬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조금은 억지도 있어보이기에 필자가 보기에 이런것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wallet”이나 “purse”입니다. “wallet”은 주로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일컫는데, 납작하고(flat)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반면, “purse”는 여성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데, 일종의 bag이나 pouch로 wallet보다는 조금 크기때문에, 보다 많은것을 넣을수 있으며 주머니에는 들어가지 않아 손으로 들고 다닙니다. 심지어 wallet을 purse에 넣어 다니기도 합니다. 참고로 캥거루(kangaroo)가 어린새끼를 넣고다니는 배에 붙어있는 주머니도 pouch라고 합니다. 크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purse에 현금이 나 카드외에 개인용 personal item인 기본여성용품을 넣어가지고 다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백화점의 여성용품점에 Handbag이라고 쓰여져 있는곳에 여러가지 모양과 크기의 지갑을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Handbag이라 주로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손에 들고다니든 어깨에 매고 다니는 shoulder bag이던 purse로 주로 부릅니다. “Pocketbook”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Handbag이라고 지칭할때에는 대부분 크기가 큰것을 말합니다.

Wallet이던, purse 또는 Handbag이던 넣고다니지 않으면 좋은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치 않는것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제일 걱정되는것이 현금보다는 credit card나 운전면허등 ID card 잃어버리는것에 대한 걱정이 태산갈것입니다.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은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인데, 생년월일도 적혀있어 가슴을 조리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Social Security번호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Social Security카드는 안전한곳에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지 않는것이 최상입니다. COVID-19 백신을 맞고 받은 card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갑을 통채로 분실하지않고 예방접종 card만 분실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Credit card는 하나면 충분하고 카드영수증도 지갑에서 빼놓는것이 좋습니다. Password를 적은 list도 지갑에 가지고 다녀서 좋을것 하나없으며, Checkbook을 가지고 다닐필요는 더더욱 없고, 당장 사용할일도 없는 Passport도 집에 보관하는것이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연장자들의 Medicare card도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처음 등록할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카드만 소지하고, Medicare card는 집에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시에는 대부분 2중으로 안전장치를 하기때문에 사용 즉시 전화로 또는 email로 사용내역이 즉시 오기때문에 불법사용을 빨리 알수있어 조치하기 수월합니다. 핸드폰도 남이 쉽게 열지못하도록

록 password나 지문(fingerprint)이나 안면인식(facial recognition)기능을 이용하여 설치해놓는것이 만일을 위해 좋습니다. 44년전 미국에 왔을 당시엔 자동차문도 별로 잠그지않고, 많은 가정집들은 현관문도 잠그지않고 다니기 일쑤였고, 차고문도 열어놓고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것을 봅니다. 사람이 많은곳에선 지갑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것이 버릇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필자도 나이가 70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옛날생각에 잠길때가 종종있습니다. 당시 시골은 고향이라는 그리움과 정감을 주는곳으로, 초가집과 원두막, 담장이 있는곳으로 강남갔던 제비, 박넝쿨이 주렁주렁 열린 초가지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요즈음엔 아버지고향은 시골, 아이들 고향은 도시인 시대도 지나 90%가 도시화한 우리나라에서 옛날의 “앵두나무 우물가에”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조금만 집을 벗어나도 한국시골같지는 않지만, 시골풍경이 전개되는 Albuquerque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ottonwood Shopping Mall이 있는 Rio Rancho와 Albuquerque사이에 Corrales란 마을이 자리잡고 있는데, 남서부 시골향내가 물씬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마을 동쪽을 흐르는 Rio Grande의 물을 운하같은 도랑으로 물을 흐르게하여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마을로 예전에 CNN Money에서 선정한 19번째로 살기좋은곳으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Corrales는 영어의 corral(가축우리)의 뜻으로 1957년 서부영화 Gunfight at the O.K. Corral (O.K. 목장의 결투)가 생각나는 단어입니다. 이곳엔 포플러(사시나무)의 일종인 Cottonwood란 나무가 많은데, 씨앗이 목화(cotton)처럼 생겨 봄여름 바람에 휘날리는것을 볼수있습니다. Cottonwood는 우리말로 미루나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온 버드나무란 뜻으로 버들유(柳)자를 사용하여 미루나무로 불리다가 발음하기 좋게 미루나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플러(poplar)는 우리나라에서 가로수와 국도변에 많이 심었던 나무로, 뽕안 먼지를 뿜으며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와 조화를 이루었던 추억의 나무입니다. “하숙생”을 부른 1960년대 가수 최희준의 hit

song중에 “내사랑 주리안”의 첫소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 포플러 그늘밑에 그녀와 같이앉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었오♪.” 포플러는 빨리 자라는 나무로 잎이커서 여름엔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엔 잎이떨어져 따스한 햇살을 제공하고 가을엔 울긋불긋 단풍으로 몸치장을 하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로마시대에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public meeting place) 포플러나무를 많이 심었기에, populus에서 나온말이 포플러(poplar)입니다. 이외에 버드나무인 willow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버드나무하면 가지가 축 늘어진 수양버들(weeping willow)을 떠올립니다. Albuquerque주택가에도 많이 심어져있는 Desert willow는 버드나무과는 아니지만 버드나무처럼 잎사귀는 길죽하며, 분홍꽃이 핍니다. Corrales는 인구 약 8500여명의 조그마한 마을로, winery가 있고, 야생동물 서식지이기도 하며, Growers Market에서 현지 농산물을 살수도 있고, Garden Tour나 Harvest Festival, Scarecrow Festival도 있는 도시안의 정겨운 시골마을로, 시골정취를 간직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수국적

2005년 미국 출생 한인 2세 “국적 이탈, 3월 31일 놓치지 마세요”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3월 31일 마감된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2043년 1월 1일까지 법이 허용한 예외조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20년동안 국적이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완전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미국 정계 진출이나 정부기관 취업,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 진출 등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은 출생신고 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국적이탈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는 2022년 9월 1일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시기’와 관련해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법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나, 태어날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본인도 모르게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부여된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들은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출처: Korea Times Media 23-02-10

간증문/수필

하나님의 네트워킹 (Networking)

홍경애

(Karen Paik)

집사

차타누가한인장로교회



내가 사는 차타누가(Chattanooga), 테네시(Tennessee)의 제일센테너리 연합감리교회(First-Centenary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는 다운타운의 이웃을 돕는 Inner City Mission 선교사역으로 After School Program과 Summer Camp를 50년 이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의 봉사로 간식과 homework help, reading, sports 등을 하고 금요일에는 homework이 없으므로 그 시간에 특별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줄어들고 금요일의 special activities를 못 하다가 지난 2023년 2월 17일에 처음으로 금요일 activity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딸들과 자원봉사자로 종이 접기(origami)를 했었기에 Friday activities가 시작되면 다시 종이접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귀한 선물로 종이접기보다 훨씬 좋은 종이비행기(paper plane) 접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몇 달 전 처음 자동차로 테네시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대륙횡단을 하게 되었다. 그때가 마침 세계 성찬주일인 10월 첫째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를 뉴멕시코의 알버커키(Albuquerque)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다. 여행 중에 한인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에 같이 참여한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에서 예배 후 친교시간에 점심까지 초대해 주셨다. 우리가 처음 왔다고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해 주셨다.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다.

그런데 친절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같이 식사하셨던 장로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본인이 출간한 책인 종이비행기접기책, 'Amazing Paper Airplanes'와 365일 매일 다른 종이비행기 접기로 엮어진 달력, 'Paper Airplane, Fold-A-Day Calendar'를 보내주셨다. 그 종이 비행기 접기 책은 내가 몇 년 전에 보스턴에 있는 과학박물관(Museum of Science)에서도 본 적이 있는 책이었다. 단순히 종이비행기를 접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실제 비행기의 역사, 항공기 용어, 비행 기술 등도 알려주는 책으로 매우 흥미로운 책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미리 알아야 하겠기에 종이 접기 연습을 하는데 잘 따라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혹시 YouTube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해보니 예상밖으로 장로님이 만드신 종이접기 달력에 있는 모든 비행기의 접는 방법을 월별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영상을 유튜브 독자가 만들어 올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유튜브 독자들에게 그만큼 인기가 있는 종이비행기 달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인기있는 종이접기 달력을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것이 고맙기도 하고,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기도 했다.

좋은 우리 하나님은 스쳐 지나 가는 노상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짧은 만남을 통해 테네시의 underprivileged(불우한) 아이들이 그 먼 곳 뉴멕시코에 사시는 한국인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지식과 재료로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나도 과학자도 되고 발명가도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 나는 이 책과 달력을 보내주신 이경화 장로님과의 인연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늘 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퍼져 계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 주시며,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만남과 사랑의 전함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기행문

내나라 강산 섬 이야기

"신비의 섬 울릉도"

송은숙

대한관광여행사사장
Dae Han Tour US
Dallas TX



요즘 들어 부쩍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아직은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가격리나 코비드 검사 등의 해제 이후 자유롭게 고국을 찾아가게 된다. 모처럼 나도 색다른 모험을 하고자 꼭 가보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를 향해 떠나본다.

서울에서 짐을 풀고 다음날 강릉터미널로 이동했다. 여행은 언제나 아이들처럼 설렘으로 시작하여 낯선 곳에서의 작은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 좋다.



울릉도 해안 산책로

강릉 가는 길은 불경기임에도 민기 힘들 정도로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특식들의 맛깔나는 냄새와 식감 등이 식욕을 돋구었다.

울릉도는 강릉, 묵호, 포항, 후포의 4개의 터미널을 이용해서 배를 타야 한다. 배편이 기상에 따라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손님의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고수하고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까닭을 가보지 않고는 모른다. 우리는 이른아침의 배편 시간으로 하루를 묵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배에 올랐다.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

는 영광을 보았으며, 붉은 불덩이는 바다를 가르고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온 하늘을 다홍 색으로 물들어버렸고, 보랏빛의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울릉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의 본섬으로 대한민국에서는 9번째로 넓은 섬이다. 면적은 약 72.86km², 약 5000년 전 화산폭발로 생긴 화산섬이며 주로 조면암, 안산암, 현무암 등으로 이루어져 동해 바다를 지키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칭

했으며 조선시대를 거쳐 외세의 침략이 잦아 태종 때는 주민들의 이주 금지령을 내리기도 한 곳이었으며, 임진왜란으로 한때는 왜구 어선 어부들이 들어와 살면서 정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광해군으로부터 일본인 금지령이 내린 이후, 고종 21년에 와서야 왕명으로 개척하기 시작하여 1914년 12월29일 울릉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얼마쯤 바다를 향해 떠나온 건가? 떨 미할까 봐 약을 챙겨왔지만, 잔잔한 파도 덕분에 아무 반응 없이 바다를 달려 약 3시간 만에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했다. 울릉도 도착/출발 항구는 배편에 따라 3항구인 도동항, 저동항, 사동항이 있으며,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울릉도 바다

를 거닐 수 있는 '행남 산책로'를 따라 거닐어 보았다. 역시 울릉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동해의 보석이라는 말에 실감한다. 청푸른 바다의 수많은 해초와 암석 그리고 그 유명한 오징어가 널려져 있지만, 실제로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에 울릉도 주민들의 불만과 수산물 어장 영향에 많이 미친다고 어민들은 말한다.

도동에서부터 행남해안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고, 절벽과 층계를 오르내리는 길이 많아 2~3시간에 걸쳐야 돌아올 수 있었다. 바닷냄새 그윽한 해초를 따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고, 부서지는 파도의 절경은 가슴이 저리도록 아름다웠다.

오늘 점심은 울릉도 특식 중 하나인 오징어 내장탕이란다. 이른 새벽에 오징어 배 갑판에서 가져온 싱싱한 오징어와 내장을 듬뿍 담아 끓인탕... 먹을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막상 수저를 들고 맛을 보니 아주 별미였다. 무를 송송 썰어 넣은 육수에, 오징어와 내장, 그리고 해산물과 콩나물을 곁들여 울릉도에서만 먹어보는 아주 시원하고 특별한 맛이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오후에는 A 코스 버스를 따라 울릉도 일주를 다녀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해안 산책로라 불리는 해안도로를 따라가자니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의 절경을 이루는 풍경은 그야말로 비경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의 3대 절경인 공암(코끼리 바위)은 주상절리(柱狀節理, columnar joint)의 모

습이 코끼리가 코를 바다에 담그고 있다고 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며, 3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삼선암(三仙巖)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승천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쳐버려, 옥황상제의 노여움에 돌이 되어 굳어졌다는 전설이 있고, 관음쌍굴은 쪽빛 바다의 절경을 담은 저녁노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배를 타고 가야 하나 육지와 연결된 다리를 이용해 걸어서 가볼 수 있다.



울릉도 삼선암

성인봉에 둘러싸여 있는 나리분지(羅里盆地)는 울릉도의 유일한 평지마을이다. 성인봉 북쪽의 칼데라 화구가 분출하며 2개로 뻗어 함몰하여 나리분지와 알봉분지가 생긴 평지이다. 나리분지는 성인봉에 둘러싸여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바다가 만나 해무 되면서 농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한다. 울릉도에서 사람이 거주하던 시점을 청동기시대로 추정한다, 산세가 뾰족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고, 대부분이 급경사지 지형을 이루는 곳이어서 농작을 하기 어려웠던 옛날에는 억세고 크게 자란 산채들을 잘 말려 소에게 여물을 주는 생태계의 순환을 볼 수 있다.

나리분지에는 오랜 전통가옥 2채가 보존되어있다. 너와집과 투막집은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의 자연에 맞게 지어진 전통가옥이다. 혹독한 기후에 투쟁했던 개척민들의 생활과 농업양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며, 자생나무인 섬잣나무, 솔송나무, 향나무, 너도밤나

무 등과 역새로 만든 우데기를 두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울릉도 특산 산채나물인 섬말나리, 참고비, 삼나물, 두메부추, 부지깽이는 울릉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산채나물이다. 나는 잠시 기사의 권유로 나리분지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산채나물과 씨 막걸리, 오징어 전을 맛보게 됐다. 3가지 특식 나물의 양념 된 나물은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식감과 향이 입안에 가득,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인다. 싱싱한 오징어와 산나물을 잔뜩 넣고 바사삭하게 구워낸 부침 또한 일미였고, 나리분지에서 직접 담은 씨막걸리와 젓들은 삼합은 저녁노을과 함께 육합이라도 부족할 만큼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기상상태로 독도를 취소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해상유람선을 타고 울릉도 섬 전역을 돌며 걸어서 갈 수 없는 바다와 괴암석의 아름다운 구석구석을 유람했다. 육지에 서만 보던 절벽과 산세가 한눈에 한 줄이 되는 절경을 보며, 멀리서 그 유명한 촛대바위를 돌아 마침내 반대 방향인 B 코스를 돌기로 했다. 마을에서 비좁은 산길을 올라 3단 폭포를 이루고 있는 봉래폭포는 화산폭발시 분출된 집괴암과 응회암 그리고 1단의 조면암으로 내려오는 유량이 무려 매일 3,000톤이나 내려져 울릉도 전체 마을의 식수임과 동시에 중요한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울릉도의 봄이면 향기가 백 리를 간다는 “섬백리향꽃”, 여름이면 봉래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가을이면 울릉국화가 들판을 활짝 채우고, 겨울이면 흰 눈으로 덮인 성인봉과 산 등지의 설빙이 각기 제멋이 있다. 시간이 있다면 성인봉에 올라 울릉도의 온천하를 보고 싶지만 짧은 시간으로는 어렵도 없었다. 해 저무는 저녁은 색다른 음식인

파개비 칼국수와 홍합밥을 선택해서 먹방을 했다. 울릉도에서만 먹는 특미였다. 해물 먹거리가 풍부한 울릉도에서 쉬어가면서 먹거리를 즐겨보자, 마지막 밤 울릉도의 은하수는 유난히도 환희 가깝게 보였다.

오늘은 우리가 황홀했던 울릉도의 비경을 뒤로하고 육지인 포항으로 가는 날, 만나질 자유시간은 도동항에서 가까운 마을을 거닐며 산책을 했다. 약수공원과 아쉽게 가 보지 못한 독도를 박물관에 들러 견학도 했다. 돌아오는 배편은 크루즈를 이용했다. 기상변동으로 인한 취소량으로 시간이 없는 탓에 2022년 10월부터 운행하게 되었다는 크루즈의 편리함은 기상변화에 상관없이 제시간에 출항한다는 것이다. 울릉도, 멀고도 가깝지만, 결코 가지 않았던 작은 섬... 긴 세월의 고생 끝에 여기까지 달려온 보람이 있었다. 짧았던 2박 3일의 울릉도 여행이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섬, 아직도 걸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었던 곳들을 꼭꼭 적어두며 다음 기행으로 미루기로 했다.

울릉도는 미리 여행 전에 사전공부와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산길 따라 언덕을 맘대로 누비고 다니기에 힘들뿐더러 부족한 호텔, 산장, 숙소로 잘못하다가는 주상절리에서 인어공주와 프린스 에릭 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금이 좀 더 비싸드라도 크루즈행을 선택해야 차질 없이 계획한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울릉도 여행을 백배 즐길 수 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 울릉도의 섬백리향의 향기가 이 먼 미국까지 올라나? ..근간 방문하지 못했던 설움에 한국 모국 방문길에 내 나라 강산 막내의 섬 “울릉도” 꼭 다녀오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왜...? 사랑하니까...?

내 나라 강산 섬마을 “울릉도”를 사랑합니다. ■

기도문

주께 간구하는 작은 기도

감순자

권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당신의 큰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당신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주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과 소망은 어두움을 물리쳤고 우리의 거짓과 교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당신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꽃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 사람을 섬기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

소서.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누리는 저희의 기쁨이 남에게도 기쁨을 가져오게 하고 오직 당신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저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기억 함으로서 저희 모두가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며 흥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경건한 삶을 살되 부지런하게 하시고 진실한 삶을 살되 주를 닮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되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뜻”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닳인 소망을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림으로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바닷물결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찬송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고립된 노인, 치매 발병 가능성 28% 높아

미국 노인병 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발표된 존스 홉킨스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 더 높다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고 정기적으로 교류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평균 연령

76세) 미국 거주자 5,022명을 대상으로 하여 9년 동안 모든 참가자를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인지 테스트를 받았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약 26%가 치매에 걸렸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의 약 20%가 치매에 걸렸다.

이 연구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주목 할만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및 인지 활동 감소를 포함하여

치매에 대한 입증된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국립 노화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사회적 고립이 65세 이상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1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약 600만 명의 미국인이 가장 흔한 유형의 치매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출처: Albuquerque Journal, January 24, 2023, Page B-5 ■

Korean Churches
in NM



교회에서 원하시는
Icon용 사진을 보내주
시면 광고에 추가해 드
립니다. 보내실 곳:
voiceofnm@gmail.com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준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
leeabq.com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온라인예배방영: www.youtube.com/KUMC_Online
페이스북: www.facebook.com/kumcabq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15분전에 찬양 시작)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 88005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
Fri)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사목회장: 김지수 전례부장: 장경림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코로나로 인해 재 구성 중)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클로비스 한인 교회 (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1:45pm
수요모임 11:30am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건축/페인트 Painting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단요가 Dahn Yoga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리커스토어 Liquors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세탁소 Dry Cleaners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식당 Restarant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스시벅스(SUSHIBUCK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D ABQ (505)766-9405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K Style Kitchen 6001 Winter Haven rd.G NW, ABQ NM (505-503-8699)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AmericaSouthwest.com 미국 남서부 지역 여행안내 사이트입니다.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자동차정비 Auto Repair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주택용자 Loan Officer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중재서비스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umcABQ.com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 QR Code 입니다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 (505) 271-2000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Voice.kumcabq.com 스마트폰에서 QR code Scan 하셔서 광야의 소리를 만나 보세요.
--	---	---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219
Coo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Hee Jo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클로비스 Clovis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 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3년 3/4 월호 발행일 : 2023. 3. 3.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505)352-5152
영업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생명보험 : 사랑하는 가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
롱텀케어 : 양로병원과 간병을 지원하는 플랜
IRA : 안전과 수익을 함께 보장하는 지수형이자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0K41143 / NM Lic.#17684619
213.321.8787
carlitos3840@gmail.com

HANMI
KOREAN-CHINESE FUSION
Business Hours
Wed - Mon 11am ~ 3pm / 4:30pm ~ 9pm
Tuesday Closed
2120 Juan Tabo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Tel: (505) 717-12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